

性:社會的 問題

서울大醫大 外科副教授

鄭 東 哲

운동 性問題로 뒤덮인 것이 바로 오늘의 現實이라해서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가깝게 우리의 生活를 직접적으로 선도하는 mass media가 性問題를 除外하고서는 도대체 맥을 못쓰는 것만 봐도 알만하다. 殺人을 비롯한 強力事件이 알고 보면 性問題와 陰陽으로 관계되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이 性的 社會的 問題를 확실히 소홀하게 취급해선 안될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불행히 演者는 社會學者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막중한 性的 社會的 問題를 다루게 한 것은 조금은 잘못된 것 같다. 따라서 精神醫學者로서 社會心理的 측면에서 중요시 된다고 여겨지는 性的 문제점을 다루어 볼 도리밖에 없다.

그리고 보면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性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둘째, 흔히 性에 있어서의 正常과 非正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셋째 社會的으로 문제가 되는 실제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들에 관해 어떤 對策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1. 性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구태여 性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음미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性보다 學問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든 孔子의 말을 통해 설득력을 찾을 것도 없이 生產的 性에서 人間關係의 性이란 개념을 거쳐 완전히 오락적 性으로 접어든 이마당에 WHO에서의 건강개념이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 의미에 性的 건강을 추가해야만 하게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Kinsey 報告가 性的 社會性의 氷山の 一角을

개고 統計的 公헌을 한것과는 달리 물경 萬四阡의 各種 sexualacts를 科學的으로 分析검토한 Mastere와 Johnson의 관찰은 우리에게 마치 性的 全部를 제시한 것 같아 찬사를 아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적어도 性的 健康개념을 WHO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면 마땅한 얘기다. 그러나 性을 각기 分光된 단편으로 보아 좋을 일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것은 마치 cardiovascular system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같이 하나의 "system" 即 sexual system으로 보아야 할 그런 중요성에 있음을 뜻한다. 統計的이거나, 行爲自體의 科學的이거나, 社會가 부여하는 性的 意味 하나 하나만으로는 어떤 것도 그 全部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충 4가지 개념을 導入하여 綜合的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即 Biological sex, Sexual identity, Gender identity 및 Sexual role behavior가 全體的으로 理解될 때 "性과 美는 생명과 의식처럼 한개의 것"이란 Laurence의 全人的 立場과 一致되는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Biological Sex는 chromosome, hormone, 및 一,二次 性徵을 말하며 Sexual identity는 sense of maleness & femaleness를, Gender identity는 sense of masculinity & femininity를, Sexual role behavior는 다시 ① orgasm을 向한 sex behavior와 ② 男性 또는 女性的인 行爲를 내포하는 gender behavior를 各各 의미하게 된다.

이중에서 특히 社會的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gender identity를 비롯한 sexual role behavior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것은 쉬 짐

작되는 바다.

2. 性에 있어서의 正·非常은 ?

물론 WHO가 定義한 건강의 개념을 익히 알고 있는 醫療人으로서는 性에 있어서의 正常과 非正常을 區分하는 것이 어려울 것은 없다. 상술한 바 Sexual System을 구성하고 있는 要因들에 상처되는 현상을 연상해두면 더욱 더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간편한 數學公式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는바 同性愛가 病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Clitoral orgasm은 과연 immature한 neumatic gain인가? 하는 지난날의 통념이 지금에 와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밝혀져 있는 것이나, 男性다움이나 女性다움이란 gender identity도 女性化되어 가는 男性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美國의 현실이나, 文化圈에 따른 性의 開放도와 풍습을 놓고 볼때 확일적으로 分界線을 설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은 것을 감안할 일이다. 역시 方法은 醫學的 Sexual complication이 어떤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는 點을 밝히고 그에 따라 검토해 볼 수밖에 없게 된다.

Sexual Complication

- 1) Sexual inadguacies
- 2) Sexual variances
- 3) Sexual diseases & disorders.

近代人이 기계문명의 부산물로 매말라버린 후 유증이라 봐서 잘못이 없을 impotence, ejaculatory dysfunction, female orgasmic dysfunction 및 dyspareunia가 첫 항목에 드는 것인데 반드시 社會的 문제가 없는 결과라고 해야할 理由는 없지만, 적어도 세번째의 Venereal diseases가 전염병으로서 커다란 社會的 문제가 되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本演題에선 일단 제외하기로 하고 이른바 性倒錯症으로 대변되는 두번째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社會的 문제로 초점을 좁히기로 한다.

3. 社會的으로 問題가 되는 실제적 性 問題는 ?

우선 Sexual variance의 양태를 나열해 보자.

1) Variance in methods of Functioning and Quality of Sexual Strivings:

- Sadism
- Masochism
- Exhibitionism
- Scoptophilia and Voyeurism
- Troilism
- Transvestitism
- Transsexualism
- Sexual Oralism
- Sexual analism

2) Variance in The Choice of Sexual Partner or Object;

- Homosexuality
- Pedophilia
- Bestiality
- Zoophilia
- Pornography and Obscenity
- Fetishism
- Frottage
- Saliromania
- Gerontosexuality
- Incest
- Mate-swapping
- Mysophilia, Coprophilia, Urophilia.

3) Variance in Degree and Strenght of Sexual Drive;

- Nymphomania
- Satyriasis
- Promiscuity and Prostitution
- Rape
- Seduction
- Adultery

현대를 unisex時代라고도 한다. 男女의 區分이 머리모양과 옷의 유행에서 그렇게 되어 가는 trans sexualism이 꼭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노출과 나체주위적 행위를 orgrsm에 상당한 쾌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그것을 보는

것으로 극치감을 갖는 친구들(voyeurism)과 共存하는 世界는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韓國의 統計와 判例는 풍부한 실정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눈이 어둡다는 결론인데 軍에서 重罰로 다스리는 sexual analism 이 젊은 친구들의 동성애와 결들여 얼마큼 시행되고 있는지 흥미꺼리의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는 않다. 燕山君의 sadism 은 지금도 환락가에서 역시 masochism 과 적지않게 어울려 있다는 풍문이다.

性的 對象에서 어린 少女를 택하는 Pedophilia 의 社會的 問題는 간단치 않다. 한동안 딸같은 父母를 긴장시킨 사건이 없었던 바도 아니며 表面化되지 않은 유사한 行爲는 상당히 많다. 근 친상간의 問題도 그렇다. 이런 性的 問題는 精神科臨床에서 個人歷을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들로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內面엔 복잡히 자리잡고 있는 것 들이다. 다만 그것은 社會로 問題化되지 않을 뿐이다. 그보다는 春畫圖, 婦人바꾸기 등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며 女子의 부속물로 解脫을 갖으려는 나머지 法的 問題로 이어지는 Fetishism 등이 문제시 된다.

그런데 社會的으로 問題가 되는 性은 아무래도 性慾의 強度가 원만히 처리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것들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於乙宇同(성종때 승문원지사의 딸)의 Nymphomania 나 박인수의 Statryasis 는 한낱 지난날의 歷史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色狂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창녀가 있다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必要惡이다. 婚外情事와 유혹을 일삼는 마음들은 각가지 記事로 신문을 십십치 않게 물들이고 있다. 強姦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行爲者와 그런 行爲가 向해질 수 있는 對象의 어떤 疇점과의 찰라적 만남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대단한 社會的 問題들이다.

일일이 해당된 性問題를 精神醫學的이거나 社會心理學的 分析을 加할 수 있는 時間이 허락된 것이 아니므로 問題점이 무엇인가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낼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한가지 分

명한 사실은 이런 性問題는 결코 한 個人의 病理때문만이 아니라 社會的 病理가 깊이 作用되고 있는 結果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點이다. 問題성의 심각성은 그 當代로 끌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재삼 관심과 대책을 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4. 對策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몇가지 요약된 反社會的 性問題의 原因을 우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첫째, 그 個人의 成長過程에서 psychosexual development 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過去가 있었다는 것이다. 환언하여 主體性을 갖을만한 成熟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둘째, 기성세대가 갖는 性에 對한 二重의 價値觀이 問題점으로 지적될 것이다. 윤리·도덕·교육·종교를 통해 기회 있을때 마다 어른이 要求하는 보수적 性的 태도와는 달리 자신들은 깊은 한락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다. 美國의 精神醫學者 Reuben 은 이런 의미에서의 二重性을 비난한 적도 있다. 몸은 우주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性器는 石期時代에 메어놓고 온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른이라는 것이다.

셋째, 社會文化的 環境이 또다른 원인으로 부각된다.

TV 와 각종 porno 에 가까운 인쇄물이 問題가 된다. 美國의 한 조사보고는 3,000名의 精神科醫師의 意見에서 특히 porno 의 영향이 자라나는 아이들에 장차 性問題를 일으키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했으며 77년 9월의 美國時事週間誌 TIME 은 TV 가 부정한 sex, 폭력 및 술 중독을 조장하는 커다란 흉기라고 종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시인해 주고 있다. 실상 美國어린이 16歲까지 TV 앞에 보내는 시간은 12,000~15,000시간이라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실감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政策的으로 脫政治化의 方面에서 sex 를 利用하는 것이 社會를 혼돈으로 몰고 올 수도 있으며 풍요한 경제가 소동과 고모라의 비극을 再現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 結果도 없지 않

다. Denmark에서는 16歲부터 性的開放을 시도해보니 의외로 노출증, 관음증, 소아기호증같은 倒錯症은 현저히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Free sex가 물고오는 私生兒의 커다란 社會的 고민이 후유증으로 있는 것과 견줄때 어느 쪽이 더 심각한 것인가는 역시 文化的 배경에 따라 가치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간단히 속단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용인될 수 있는 方向으로 진행해서 좋을 형편에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고 보면 對策이 간단하게 圖式化될 수 없는 것임도 확실하다. 올바른 性敎育과 父母의 일관성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하며 社會的으로 有機的 關係가 總體으로 잘 짜여지므로서 질서 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기대를 해 봐야 되겠지

만 그것은 理論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sexual offender에 대한 social rehabilitation으로서 구금, 外科的 거세술, 行動療法 또는 antiandrogen (cyproterone acetate)療法에 모든 기대를 갖을 만큼 단순한 것도 아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個人과 社會가 다같이 成熟해가는 창조적 가치관을 바탕에 둔 敎育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아울러 醫療人의 입장에서선 性問題의 專門的 취급을 소홀히 넘겨서는 결코 안 될 일이며 막연히 생각해 온 性에 대한 自己 편견을 마치 醫師의(醫學的)대변자인 듯 단언하는 것같은 자세는 극히 삼가하여 대중이나 환자로 하여금 혼돈이 없도록 해야함이 우선 지켜져야 할 마땅한 입장이라 여겨진다.